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치경



'가만히 앉았는 안철수가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을 이겼다' 지난 3일 박원순 후보를 선출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경선 결과를 놓고 회자되는 말이다. 이번 결과는 한 달 전 불어닥친 '안철수 바람'이 밀바닥에서 아직도 거세게 살아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박원순 후보와 맞붙은 박영선 의원은 자질 면에서 손색이 없었고 민주당은 막강한 조직력을 발휘했지만, 안철수 현상의 도도한 흐름을 꺾어지지 못했다.

새로운 물의 등장에 열광

이제 안철수 현상은 우리 사회의 대변력을 불러올 하나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정착될 조짐이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사고나 견해의 테두리를 갖게 되는 데 이를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이같은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은 시대별

로 모습을 달리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난한 시절에는 경제적 풍요를, 정치 권력의 독성이 황폐하면 민주화를 갈구하며 이를 실현해 내는 방식으로 시대적 패러다임을 형성해 왔다.

패러다임 빅뱅, 준비됐는가?

그러나 '안철수 패러다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과거 경제발전이나 민주화라는 사회적 목표가 이뤄지더라도 항상 변하지 않는 법칙이 존재했다. 누가 승자가 됐든 '전리품 독식'이라는 불문율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일단 집권세력은 모든 권력행사의 주체가 됐다.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은 마음내키는 대로 돈을 벌 수 있었다. 한마디로 '강한 자는 사회를 제 마음대로 움직여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관념적

틀이었다. 하지만, 안철수 패러다임은 혁명적이다. 승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천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열등'을 일거에 날려 버렸다. 애초 안철수 교수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박 변호사보다 10배나 높은 지지도를 얻었지만 깨끗하게 양보했다. 박원순 변호사의 '강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물론 안 교수의 정치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그가 어떤

'복안'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양보의 변(辯)만큼은 경험해보지 못한 '쿨'한 것이어서 대중들은 크게 매료됐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안철수는 분명 '별종'이다. 내가 후보가 되지 못하고, 내가 뽑히지 못하면 모두 상대 탓으로 돌리는 역치를 여지없이 뚫고 버렸기 때문이다. 또 야료를 부리지 않고 양보하더라도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성공했다.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예고편으로 가능 된다. 서울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안철수 현상'이 총선과 대선을 지나칠 리 없기 때문이다. 즉, 내년 양대 정치행사를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기회로 삼아려 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하다.

거대한 변화, 대응해야 생존

안철수 교수 등이 추구하는 신 패러다임은 대략 ▲비전과 책임을 수반한 정치 선진화 ▲나눔과 상호인정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 ▲창조적인 삶을 위한 물질 기반 마련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가장자리로 비껴난 듯 보이는 광주·전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이번 대선전에서 종래의 의미조차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는 불평등 대우와 소외에 대한 항변에 귀를 막은 지 오래다. 이같은 형국에 안철수 현상까지 겹쳐 지역의 좌표는 더 불투명해졌다.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빅뱅'이 머지않아 보인다.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뒤처질 뿐이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설

한미 FTA 농업대책 '땀질 처방' 안 된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현실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FTA 이행법안은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미 의회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부결시킨 적이 없어 한미 FTA가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산업 가운데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는 농업이다. 피해 규모는 향후 15년간 무려 12조2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천200억 원, 10년차에 1조2800억 원, 15년차에는 1조2천758억 원이 각각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할 뿐 한미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뜰이나 경쟁력이 약화된 농업과

농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선(先) 농업대책, 후(後) 비준'을 주장하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가 이미 발표한 'FTA 농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신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미 FTA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더라도 농업과 농촌을 살릴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도 총리를 책임자로 한 '선 개방대책, 후 협상'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지원금 위주로 짜인 농업보완대책을 농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수정해야 한다. 농민들이 개방 이후에도 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인화사태 '호들갑' 아닌 후속대책 서둘러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되면서 그 후속 조치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4일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유석불 일미재단에 대해 6명을 징계하는 한편 인화학교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도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치권도 '도가니 방지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관련 기관 하나같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론이 편승한 '뒷방청정'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지을 수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난 6년 동안 관할 및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광산구, 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

다. 인화학교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4일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유석불 일미재단에 대해 6명을 징계하는 한편 인화학교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도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치권도 '도가니 방지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관련 기관 하나같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론이 편승한 '뒷방청정'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지을 수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난 6년 동안 관할 및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광산구, 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

은핀칼럼



박현순

지난 8월 전남대학교에서 은퇴하고 곧바로 네팔의 파탄의대에 객원교수로 왔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의료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네팔은 한층 더 심각한 것 같다. 이곳이 세계 10대 고산 중 8개가 있고 남부의 평야(Terai)를 제외하고 거의 산악지대이다. 수도인 카트만두 밖은 대부분 지형적 고립과 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되었다. 1970년대 말까지 네팔에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이 전무했지만, 지금은 매년 2000명에 달하는 의사를 배출한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카트만두에 정착하거나

의료 후진국 네팔의 새로운 시도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는다. 수도에서는 한 사람의 의사가 주민 1330명, 산지를 포함하는 시골에서는 3만1000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시골 주민의 평균 수명은 수도권 사람들보다 20~30년이 짧다. 시골이 수도보다 의사 1인당 주민수가 23배 이상 많고 평균수명이 20~30년 짧다는 사실은 의사수와 평균수명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팔에는 지난 50년간 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사랑과 박애 정신에 따라 파탄병원(Patan Hospital)을 운영해 왔다. 최근에 신설된 파탄의대(Patan Academy of Health Sciences)는 파탄병원을 인수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이곳에서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정신과 비전은 예나 지금이나 같아 보인다. 파탄의대는 가난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주는 것, 즉 네팔의 지역 간 의료 혜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어떤 정책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교육이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대학에서는 첫째, 학생들의 절반 이상을 의료 사각지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둘째, 총 6회의 현장실습이 필수이며 이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모든 학생들은 슬럼 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곳에서 수일 또는 수 주간,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는 6개월의 실습을 마쳐야 졸업자격을 얻게 된다. 셋째, 소그룹의 사례(문제) 중심 토론 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 활성화되어 있다. 넷째, 학생들이 실력 있는 의사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료보전 분야에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한다. 6년 교육을 마친전 장학금 수혜자들은 배

은핀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조규중

제16차 국제광산업연합 총회(IOA)와 유럽광산업전시회(ECOC)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IOA는 미국·일본·EU(유럽공동체) 등 전세계에서 광산업을 이끄는 12개 회원국이 모여 각국의 광산업 현황과 비전에 대해 협력·교류한다. 또 광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IOA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광주시가 광산업 특화사업을 시작하며 회원국에 가입했고, 10년 만에 최후수 광산업국으로 발돋움했다. 예를 들어 광통신 속도를 보면 한국·일

광주시민은 광산업 홍보대사

본·홍콩·대만 등 IT강국의 평균 속도는 38.8Mb/s인 반면 EU의 평균 속도는 3.4Mb/s, 미국은 7.6Mb/s다. 한국은 EU와 미국보다 5배 이상 전송속도가 빠르다. 이미 100Mb/s 이상의 전송속도가 상용화돼 인터넷 최강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3~4년 후 광통신시스템 비전에서도 한국은 10Gb/s 이상의 전송속도를 상용화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광소자 개발도 한창이다. 전시회에 다니다 보면 외국 전문가들이 가끔 질문한다. '한국은 지금도 세계 최고 인터넷 강국인데 왜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필요한 지'를. 답은 간단하다. 한국인들은 일 목적 탓에 전송속도가 1초만 늦어도 가입자망 회사에 항의하고, 더 빠른 통신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더 빠른 서비스,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전송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여름 장마때 서울 시내 곳곳이 침수됐

다. 당시 시민들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보냈고, 이 영상이 TV를 통해 방송됐다. 전세계에서 휴대전화 동영상이 생중계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영상이 실시간으로 사무실이나 집으로 전달되는 데는 광케이블이 역할을 한다. FTTH(Fiber To The Home·택내광가입자망) 시스템이다. 한국의 FTTH 보급률은 전국 가입자의 50%를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랑할 만 하다. FTTH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광분배기가 필요한데 광주가 그 주산이다. 세계 시장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유럽광산업전시회에서도 광주의 광산업 기술은 눈에 띄었다. 참가업체 100여 곳 중 한국 기업 2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광주에서는 우리로광통신, 피피아이, 오이솔루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센터 등 10여개 업체가 참가했고, 관람객과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광주 광통신분야 매출액은 4100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수요도 충분히 매출은 향후 10년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업 전체 매출액도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3조원, 내년엔 5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광산업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광산업을 잘 모른다. 지난 10여년간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다 보니 많은 기업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마친 4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1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광산업이 무엇인지,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광주시민 모두가 전시회를 찾아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광산업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그리고 광산업 홍보대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더군다나 농민들은 밝은 내년부터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논밭으로 일출하기 위해 나간다. 어두운 상황에서 줄기나 난폭운전하는 차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농촌 도로를 만들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갓길 부지를 확보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차도로 다니다가 불행을 당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성희·광주지 남구 도움동>

無等鼓

세계 대부분의 민족과 국가가 자신들의 독특한 신화와 신들을 지니고 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을 비롯해 올림포스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신들의 이야기로 유명한 그리스·로마가 대표적이다. 태양의 상징이자 신들의 왕으로서 사람의 몸에 바다매의 머리를 한 '리'를 비롯해서 지상의 풍작과 사후의 평안을 관장하는 오시리스, 만물을 창조한 아멘(아몬) 등의 신을 자랑하는 이집트도 유명하다. 세계수(世界樹) 위그드라실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최고의 신 오딘을 비롯한 신들의 일족과 거인족 및 괴물들이 서로의 존망을 걸고 라그나로크라는 마지막 혈전을 벌이는 북유럽신화는 오늘날 각종 영화나 게임의 소재로 애용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언과 마술을 하는 드루이드교 승려들과 전설적인 아일랜드의 영웅 쿠릴린으로 대표되는 서유럽 신화 역시 판타지 문학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12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는 파괴의 신 시바와 구제의 신 비슈누, 창조를

관장하는 브라마 등 힌두 3신을 비롯해서 수천, 수만의 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불사(不死)를 열망하며 방랑하는 영웅 '갈가메시'의 이야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지역의 신화 중 상당수는 한때 유력 종교로 승화되어 대중의 삶을 지배했으며, 신화 속 일부 신들은 지금까지도 신전에 모셔지며 전세계에서 숭배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 3월은 단기 4344년 개천절이었다. 우리 한민족의 전통 세계관으로는 '우주가 열린 날'이자 단군조선의 건국일이자, 실제로는 '하루 쉬는 날' 이상의 의미는 없는 듯한 것이 현실이다.



슬픈 개천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대국으로서 위상을 갖춘 한국이지만, 한민족의 정통성과 단일한 가치관을 상징하는 민족신화를 이치러 쪼개져 한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홍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

위험한 시골 도로, 경운기·오토바이 다닐 갓길 시급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이 시골 도로변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지난 추석 때도 고향 어르신들이 벌초하다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사고발생의 주원인은 국도와 지방도 주변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변에서 고속으로 오가는 트럭과 버

스, 승용차들의 질주에 속절없이 당한다. 하지만, 현재 국도나 지방도를 보면 도로에 차도만 설치되어 있고 농민들이 오갈 수 있는 갓길이 없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도시의 도로에 통행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한 갓길이 인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농촌주변의 지방 국도에는 갓길이 인도가 없다. 결국, 난폭운전을 하는 차들에게 농민들이 대책 없이 노출되게 하는 꼴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